칼럼

IMF시대의 환경보전

정 용
연세대학교 환경공해연구소 소장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 교수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불과 3개월 전만 하여도 우리나라는 곧 G7국가에 일원이 될 것이라는 부푼 마음이었다. 꼭 1년전 OECD에 가입하게 되었고 모든 국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긍심에 부풀어 있었다. 해외에서 뽐내고 다녔고, 국내적으로 사치와 허영이 극에 달했다. 일반국민들은 국내 경제상태가 거품인줄 모르고 과소비 하였고, 정치권은 정치적 이해상관이 있는 기업에 관치금융혜택을 주기에 바빴고, 대기업들은 무조건 회사 불리기에만 급급하여 중소기업이 죽고 망하던 상관하지 않았다. 자기 자본이 3%도 되지 않는 회사가 부채를 200-400%씩 안고 사업을 하였다니 참으로 한심한 일이 아니었는가?

마치 국민들은 세금내어 대기업을 지원하는 꼴이고 금융회사들의 외환 빚을 청산해 주는 봉이 되었다.

그동안 정치인들은 무엇을 정치하였는가? 그저 자기 과시와 정경 유착으로 뇌물이나 받아먹고 대기업에 존 꾸어주는 압력이나 행사하는 앞잡이 노릇이나 했단말인가? 그리고 국민을 다스리는 행정관리들은 무엇을 했단 말인가? 그저 국민이 알지도 못하는 헛수 자나 뇌까리면서 이리가라 저리가라 국민들을 호도한 것이 아닌가? 국민들은 알지도 못하면서 잘 산다니까 빚내어 해외관광 가고 외제 옷입고 쓸데없이 돌아다닌 것이 아닌가?

과거에 6.25동란을 거치고 국민1인당 소득이 100불이 안되던 시절을 이기고 1만불 시대를 이룬 국민들이 처한 오늘날의 꼴이 말이 아니다.

이제 자존심도 잃어 버렸고 창피를 무릅쓰고 외환극복을 위해 벌이고 있는 노력들이 가상하다.

그러나 이 경제 위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계속해서 외채 이자는 불어나고 있으며 꽁꽁 얼어붙은 경제는 활력을 되찾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대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해야하고 그 후 또 재투자하여 설비하고 기술습득한 후 수출하여야 경제가 되살아날 것이라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다.

이미 대부분의 기업들이 국제적으로 수출경쟁력을 잃고 허둥대기 시작한 것은 4-5년전부터이다. 기업들의 R&D 투자는 하지 않고 외국에서 로얄티주고 기술전수받아 국내에서 장사하여 이득을 취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외채만이 늘어갈 수밖에 없다.

아직도 어느 경제행정관료는 지금처한 상황은 단지 외환위기이고 경제위기는 아니라고 하는 어이없는 발언을 하고 있는 것도 본다. 참으로 한심스런 작태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국가가 모라토리움(국가부도)에 달해야 정신을 차릴 것인가(?) 알 수 없다. 지금의 책임은 어찌되었던 정치가, 행정관료들과 대기업들이 일차적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다. 이들의 책임적인 통감없이는 이 경제난국의 회생은 불가하다.

지금 IMF가 돈을 주어 주면서 우리나라의 경제구조에 대하여 이렇게하라 또는 저렇게 하라하며 대통령보다 더큰 위용을 발휘하고 있다. 일각에선 IMF총재가 우리나라 대통령이라고 한다. 이러한 현실은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은 누구나 극복해야 할 새로운 도전인 것이다. 이보다 더 챙피하고 급한 것은 없지 않은가?

이제 당하고 있는 IMF시대는 외적이 처들어 온 것도 아니고 우리 국민이 자초한 경제적 난국이다. 나는 이 IMF시대가 온 것은 지난 30-40년간에 급속한 경제성장을 하면서 가지고 온 3가지 원인에 기인한다고 본다.

첫째, 기업윤리가 바로 서있지 않는 자본주의적 발전이었다. 기업은 마땅이 국민으로부터 출발하고 국민들을 위하여 이득은 재투자하고 고용을 창출하고 국제적 경쟁력을 길렀어야 할 것이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문어발식 합병하고 경쟁상대로 생각하여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쓰러뜨리는 작태는 참으로 한심하였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환경보전의 의지도 없는 것이다.

둘째, 사회질서가 문란하였었다. 사회기강이 잡혀 있지 않았기 때문에 법을 지키면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되었다. 환경보전 문제에 이르르면 더욱 그러하였다. 기업체가 산업폐수 또는 폐기물을 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이 한 두 번의 점검에 걸려 벌금을 내는 것이 훨씬 싸다고 생각하게 하는 제도하에서는 환경보전은 없다.

즉, 나쁜일 또는 비도덕적인 기업 또한 개인이 더 인정받고 오히려 능력이 높이 평가되었었다.

셋째, 국민에게 주는 올바른 목표가 없었다.

단지 잘살게된다는 것이 잘입고, 잘먹고 돈쓰는 해외여행을 한다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었다. 차세대를 위한 진정한 교육목표, 도시정비, 문화창달, 환경복구와보전등과 같은 진정한 인간의 가치를 인정받는 복지사회를 건설하는 미래의 목표가 제시되지 못하였다.

이는 특히 정치인들의 철학부재가 낳은 산물이었다. 정치인들은 국민에게 삶의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여 주어야 한다. 정치적으로 언제나 환경보전이 사후 문제 해결식으로 다루어졌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깨끗하고 맑고 아름다운 환경보전 그리고 복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경제적이유로 항상 뒷전에 정책적으로 밀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아마도 IMF한파로 인한 환경보전사업은 한동안 단지 구호에만 그칠 가능성이 많다.

지금은 제4공화국 1980년까지 잘 추진되어 오던 새마을운동은 그 정신과 실천은 온데 간데없어진지 오래다. 이제는 새로운 새마을 운동이 절실한 시대이다. 새로운 김대중정권에게 기대하여 본다.

IMF사태가 환경보전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할 것이다. 우선 경제적으로 가치가 적거나 없는 것(valueless)[주1]들에 대하여서는 그 보전 또는 개발(혹 복원)이 경제적인 개발논리에 미루어지거나 능한시 될것이 우려된다.

경제적 가치가 적거나 없다는 것, 즉, 물·공기·자연생태계·경관등을 보전하는 것을 공장 또는 아파트를 건설하는것보다 비경제적으로 오인될 수 있으며 오히려 파괴될 수 있다. 단순한 논리의 경제개발로 선진각국과 그동안의 우리나라의 발전과정에서 숫한 느낌과 경험을 갖고 있으나 무시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행정적으로 환경부까지 설립되었으나 GNP대비 0.59%(1996년말)에 해당하는 정부차원의 환경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G7선진국들의 GNP 1-2%에 비하여 이 투자는 미미한 것이며 더욱이 총액수는 적은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IMF시대에 국내적으로 기초적인 환경보전 또는 복구 사업은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주1 : valueless :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고 가치를 측정할 수 없는것

환경 후진국이 될 수 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대기오염 발생원을 살펴보면 총 오염물질 배출량 435만m3중 48.8%, 산업부문이 28.8%, 발전부문 14.6% 그리고 난방부문이 8.8%이며(1995년말 현재) 또한 수질오염원은 생활하수는 1일 약 16,000㎥, 그리고 산업폐수는 약 9,000㎥(1996년 현재)로서 양적으로는 생활하수의 배출량이 산업폐수보다 약 1.8배이나 그질은 보다 악성이므로 방류처의 하천이나 해역의 오염은 보다 산업폐수의 폐해가 심하다.

따라서 아마도 경제적인 이유로 감시나 단속을 게을리하거나 처리시설 운영을 게을리하거나 무시하는 경우 보다 심각한 오염현상이 발생 할 것이다.

현재 중국의 대도시와 공업단지부근의 환경오염현상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은 이미 전세계가 알고 있다.

한편 국제적으로도 ISO 14000에 의한 환경경영이 부실한 사업체에 대한 제품의 수출입이 제한되는 마당에 국가적인 환경경영 신뢰도가 낮추어지는 경우 수출입에 많은 타격이 올 수 있다.

국제적으로 우리나라 상품을 수출하는데만 주력하고 수입에 등한시한 품목에 대하여 많은 환경경영부실에 따른 압력과 제재가 예상되기도 한다.

이러한 국제적 압력과 제재는 보다 국내경기를 악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제 IMF시대의 모든 분야에서 개개의 국민들이 새롭게 태어난다는 기분으로 각오를 가져야 할 것이다. 특히 환경보전 분야에 대하여서는 이 시기에 재점검되고 더욱 분발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주도 또는 대기업주도의 개발사업에 대하여 국가적 목표(또는 목적)에 합당한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 개발이전에 사전에 사업에 대한 환경적으로 악영향을 미리 예측하여 그 대책이나 대안을 강구하는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과거와 같이 환경영향평가가 개발을 합리화하여 환경파괴나 오염행위를 합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그리고 국가적인 목표는 지속적이며 일관성있는 방향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화속에 지방화를 꾀하므로서 매우 이기적인 환경보전대책으로 오히려 환경을 파괴하는 경우가 많다.

국민 기업은 환경보전의 의미를 되새겨, 검소하게 그리고 깨끗한 환경을 유지·보전·복구에 힘을 기울일 시기이다. 여기에는 에너지등 원료절약, 제품품질향상, 재활용등의 실천적인 계획과 행동이 필요하다.

더욱이 기업은 청정공정개발, 새로운 처리용법개발, 폐기물재활용 기술의 개발이 촉진되어야 하고 정부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정부와 언론은 환경교육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 특히 국민과 기업이 실천할 수 있는 것과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자발적인 행동을 유도하도록 할 것이다.

물론 환경보전에 관련된 모든부문, 즉 행정부, 정치인, 기업, 교육자, 언론, 문화관련 종사자, 과학자 등은 새로이 이정표를 설정하고 정진하는 시기이다. 다행히 대한민국 국민들은 IMF시대에 좌절하지 않고 있으며 누구나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각오가 되어 있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시기가 자기성찰에 따른 새로운 국민화합과 근검절약과 아름다운 국토건설에 다짐을 가져온 쓴약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글을 마감한다.